

사설

선학원과 최후통첩

대한불교조계종 재건의 산실인 선학원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개혁회의의 출범과 함께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이 산하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학원 측의 반발로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94년 11월 28일에는 중앙총회에서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학원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지만 근본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96년 8월에는 양측 대표자 간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어 문제해결의 전환점이 되었으나 그 후 실무협의를 통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총무원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종헌 종법의 정신과 중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후 통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정기 중앙총회에서도 총무원장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 문제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안에서의 심한 내부적인 갈등을 지켜보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다. 분종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양측이 사실을 버리고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의 더 이상 분규의 모습으로 끌고가는 안된다. 여튼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님 정신과 조계종지의 뜻을 받들어 양측의 화합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자. 역사적으로 선학원은 일제 탄압이 극심하던 때에 선종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 불교지

도자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해방 후에는 정화불사와 조계종 재건의 산실이었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뿌리로서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 한국불교는 자체 개혁을 통해 불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때이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불교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둘째, 조계종 종지를 받든다는 의미는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다만 그 종헌 종법의 해석과 적용은 문자에 집착함이 없이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학원은 역사가 깊고 재단법인이라는 법적지위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민법을 비롯하여 각종 세간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재단법인이지만 그에 앞서 부처님법안에서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점을 양측은 깊이 인식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너무 규정에 노예가 되고 형식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쌍방의 양식과 불심으로 서로서로 등불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존중해 주면서 점차적인 물적·인적 교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종단의 활동이 부처님의 정신에 따라 엄법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양측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 서로의 갈등을 씻고, 한국 불교의 중흥에 힘을 합치길 우리 불자들은 서원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건의 산실인 선학원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 개혁회의의 출범과 함께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이 산하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학원 측의 반발로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94년 11월 28일에는 중앙총회에서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학원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지만 근본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96년 8월에는 양측 대표자 간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어 문제해결의 전환점이 되었으나 그 후 실무협의를 통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총무원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종헌 종법의 정신과 중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후 통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정기 중앙총회에서도 총무원장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 문제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안에서의 심한 내부적인 갈등을 지켜보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다. 분종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양측이 사실을 버리고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의 더 이상 분규의 모습으로 끌고가는 안된다. 여튼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님 정신과 조계종지의 뜻을 받들어 양측의 화합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자. 역사적으로 선학원은 일제 탄압이 극심하던 때에 선종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 불교지

조계종 내년예산 204억원

종회 심의확정 관람료법 개정... 법인실태 조사키로

1일 개최됐던 조계종 제129회 정기중앙총회가 내년 종단예산 204억9천9백만원의 심의를 의결하는 등 총17건의 안건중 12건을 처리하고 11일 폐회했다.

이번 총회에서 심의 통과된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은 중앙총회, 교육원, 포교원을 비롯한 각부서의 비정규직 급여가 대폭 삭감됐으며 종립선원과 지방승가대 보조금, 군법당건립지원금은 소폭 증액된 특징을 보였다.

상징된 종법 제개정관련 7개의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심의 통과된 관람료 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관람료위원회의 임시의 소집을 규정된 제4조2항 부분으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 또는 총무원장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조계종이 출연한 학교법인과 복지법인의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이번총회의 수확으로 꼽힌다. 또 종법제개정 특위를 일단 해체하고 정유, 성문, 법등, 정우, 영담, 영배, 종광스님을 위원으로 재구성했다.

중앙총무기관 감사보고에서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수님은 "9월말 현재 전국 본사 가운데 포교공장이 공식인 본사는 5개이고 타업무와 결정을 하고 있는 본사도 적지 않다"며 이에대한 포교원과 총무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총무원 총무보고에서는 성도도안 사찰의 주지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인사사고에 적극반영해

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이와관련 호법부장 성관스님은 "금년들어 성보를 도난당한 주지 7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관람료 문제와 관련 총회는 "국회가 이번 회기중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공원입장료 가운데 사찰기여도에 따른 문화재 수리보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원 총무보고에서는 현진스님이 "중앙승가대와 지방승가대 4학년 과정에 포교실습 과정을 설치해 일선포교당에서의 포교실습을 학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장 황적스님은 "이미 은혜사 승가대학원과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전체 승가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포교원 총무보고에서는 공어촌 포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

한국종교지도자협사단법인 인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월주)가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10일 문화체육부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냈다.

종교지도자협회는 또 각 종파별로 △종교 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대사업(불교) △종교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원불교)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유교) △전진사회화활동을 위한 사업(개신교) △청소년 계도와 육성을 위한 사업(가톨릭) △통일대비 민족통일성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천도교)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민족종교연합) 등 사업을 설정했다.

“범패·작법무·탱화등 의례 중요사찰별 특화보존하자”

범패·작법무·탱화 등 불교의례 가운데 하나씩을 중요사찰별로 보존 육성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시연해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례의 원형보존과 계승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어사작법학교(교장 인목)가 12일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가진 '한국종교의례의 현황과 과제' 주제 심포지엄에서 정각스님(불전국역연구원)은 "불교의례의 목적

은 적합한 규범의 실행과 우리 자신의 길들임을 통해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허약한 열정을 가라앉힘으로써 해탈을 추구한다는 불교수행의 방편이고 이것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는 언의의 성격을 띤 종합예술"이라 설명했다.

정각스님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무용·무대예술·미술·공예 등이 총망라된 불교의례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각 향

목별 전수자들을 지정하여 그 맥을 잇도록 해야하며 중요 사찰별로 불교의례 가운데 하나씩을 보존, 육성케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시연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굴암 불국사·한글음 한국문화 CI 확정

한국문화 대표를 통함이지(CI) 위상이 확정 발표되었다. 문체부는 12일 석굴암 불국사를 비롯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등 CI 대상으로 10개의 디자인시스템을 발표했다.

“종교정책 편향적” 97.5%

대구BBS, 지역스님 설문 “대통령의 종교생활” 82% 긍정

대구경북지역 스님의 95.7%가 현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8.6%가 국립공립원장료를 폐지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대구방승이 개국1주년 기념으로 11월1일부터 3일까지 불교대구방승의 거점권에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조계종 사찰과 해인사속의 스님 1천7백90명(모집단)중 1백89명(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와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치적식일'과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의식' 및 '불교정책에 대한 의식' 등 3개범주 20문항에 걸쳐 실시됐다.

스님들은 대표적인 종교편향 사례로 군대에서의 특정종교강요(50%), 공무원시험의 경일실시(25.3%), 특정 종교지도자의 잦은 청의대방문(13.7%), 불교

방송망 확충의 어려움(11%)등을 꼽았다.

국정책임자의 종교생활을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생활 보장(69.9%)' '사적인 종교생활 전적으로 허용(12.4%)'으로 나타났다.

국정책임자라 할지라도 종교생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단체에 영합을 끼치므로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7.5%에 불과했다.

“종교교류통해 북한변화 유도” 국제불교 통일세미나서 도안스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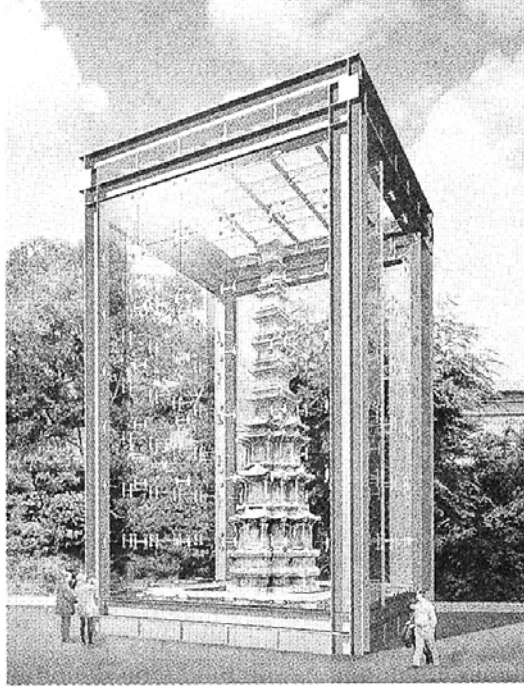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종교교류와 협력이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스님)는 12일 아산 그랜드파크호텔에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불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평화통일 불교협회 회장 도안스님(LA 관음사주지), 재일본 한민족불교총연합회 명예회장 태연스님(일

본 보현사 관장), 조계종중앙신도회 김현곤 부회장(북한경제포럼 이사)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도안스님은 '해외불교인이 한반도통일에 기여해야 할 역할과 한민족의 화해 협력문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종교의 활성화 뿐이다"고 전제하며 "남북한간의 종교협력은 북한사회를 개방화하고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1월 완공될 원각사지석탑 철골보호각 조감도.

원각사지 석탑에 철골보호각

서울시 내년 11월 공개 내부운동 자동조절 가능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이 특수제작된 철골 유리 보호각에 모셔진다.

서울시는 7일 산성비·매연·조류 배설물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석탑에 내년 11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골보호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탑을 현대식 철골

구조물로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문화재 보호각 설치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각은 전·측면 8.4m, 높이 14.4m, 두께 12mm의 특수강화유리로 만들어진다. 시야 장애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처럼 투명하게 트인구조로 이루어지며 좌우측과 뒤쪽에 환기창을 설치해 내부공기가 일정온도에 다다르면 감응장치가 자동개폐돼 실내온도를 조정하게 된다.

현대만평

부처님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요

737-8881

북·한·동·포·돕·기

'97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

사생의 자부하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서원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30일 (일)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남도예술회관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화엄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

◆ 후 원 : 불교광주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북지사

1997. 11.

광주 불교 사암 연합회 회장 상명 합장

특별출연

- 정율스님(이리 원광대 음악학과 재학생)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김용철(국악인) : 한량무
- 박초향(국악인) : 장타령

문의 전화

062)376-3224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5-9986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